

경제동향

■ 요약

■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가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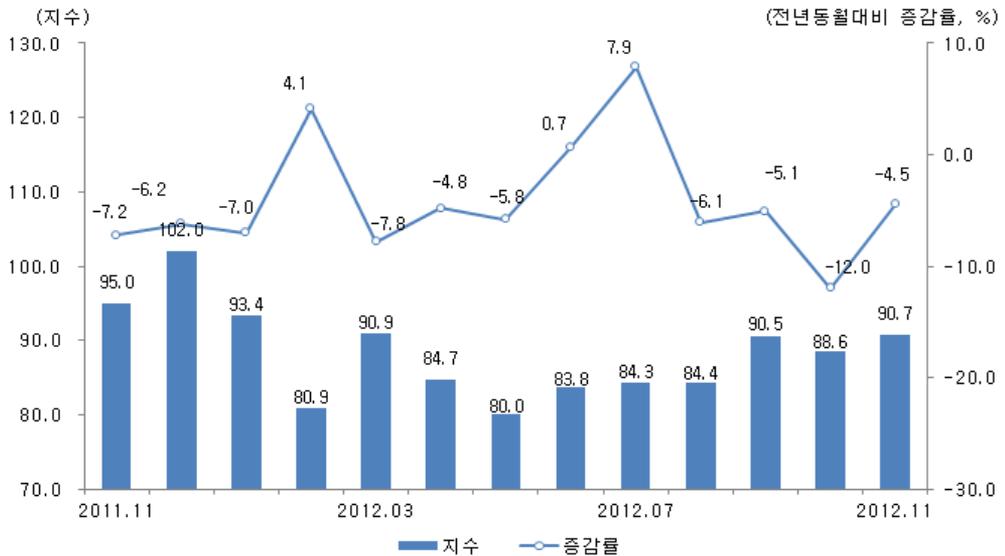
소비	<p>서울의 11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6.5% 증가로 2012년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하여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p> <p>11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2,723억원(66.0%), 대형마트 판매액은 6,560억원(34.0%)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장 많은 판매를 보인 것은 백화점의 경우 패션용품이 59.9%, 대형마트는 식품 54.5%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판매액은 4권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가 1위, 그 다음으로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인 것으로 나타났다.</p>
고용	<p>서울의 11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과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하락, 실업률이 하락하였다.</p> <p>연령별로는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취업자는 10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연령별 취업자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p>
물가	<p>서울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으로 9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가 1.8%,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은 6.5% 상승하였다.</p> <p>타 품목에 비해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7.0% 하락하는 등 타 품목에 비해 낙폭이 커 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시농업 등과 같은 대안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도시의 물가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물가는 전국에 비해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부동산	<p>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주택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3개월 연속 상승하였다. 전세가격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매수시장 관망세가 지속되고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강남지역 특히 서초구, 유형별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였다.</p>

| 생·산 |

서울의 11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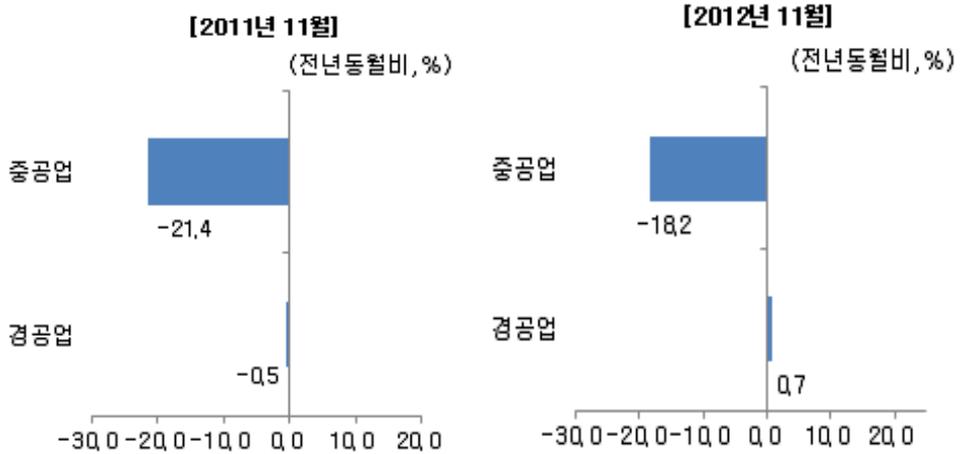
■ 서울의 11월 산업생산지수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서울의 11월 산업생산지수 90.7(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4.5% 감소
- 중공업 부문 전년동월대비 18.2% 감소, 경공업부문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전년동월대비 의복 및 모피(5.3%) 증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16.4%), 기계 장비(-29.4%), 가죽 및 신발(-32.8%) 각각 감소
- 중공업 감소폭이 크나 경공업 소폭 증가로 마이너스 성장세 완화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11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1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4.3(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 제조업 생산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반도체 및 부품(6.8%), 화학제품(2.7%), 의약품(9.4%) 증가
- 반면, 기계장비(-9.0%), 비금속광물(-9.3%), 금속가공(-4.2%) 등에서 각각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로는 교육(-0.9%), 숙박음식점(-0.3%)에서 감소하나 금융보험(2.7%), 보건사회복지(4.8%)등에서 증가하여 총 2.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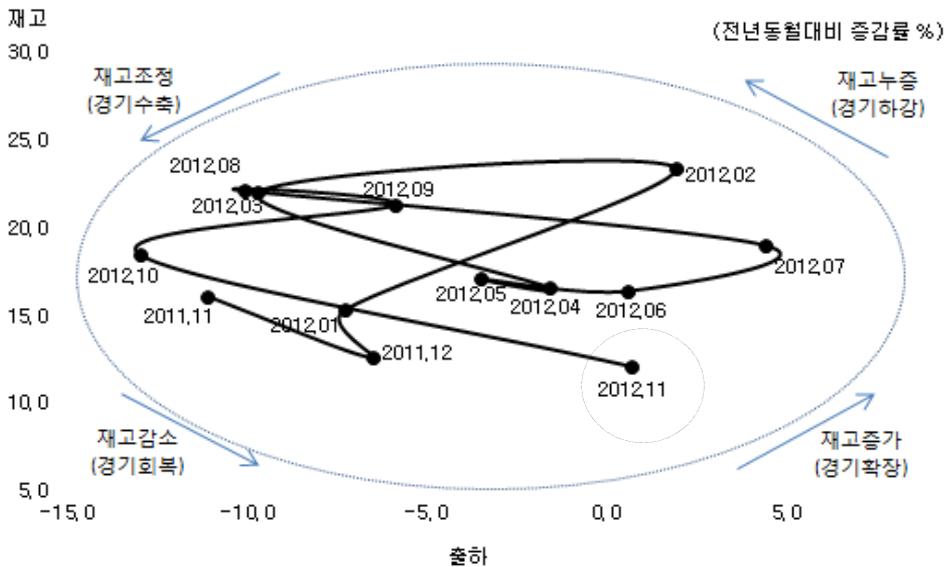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11월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

- 서울의 11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재고 각각 증가로 경기확장기
 - 서울의 11월 재고지수는 130.9(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
 - 서울의 11월 출하지수는 107.8(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 출하, 재고 각각 증가하여 경기확장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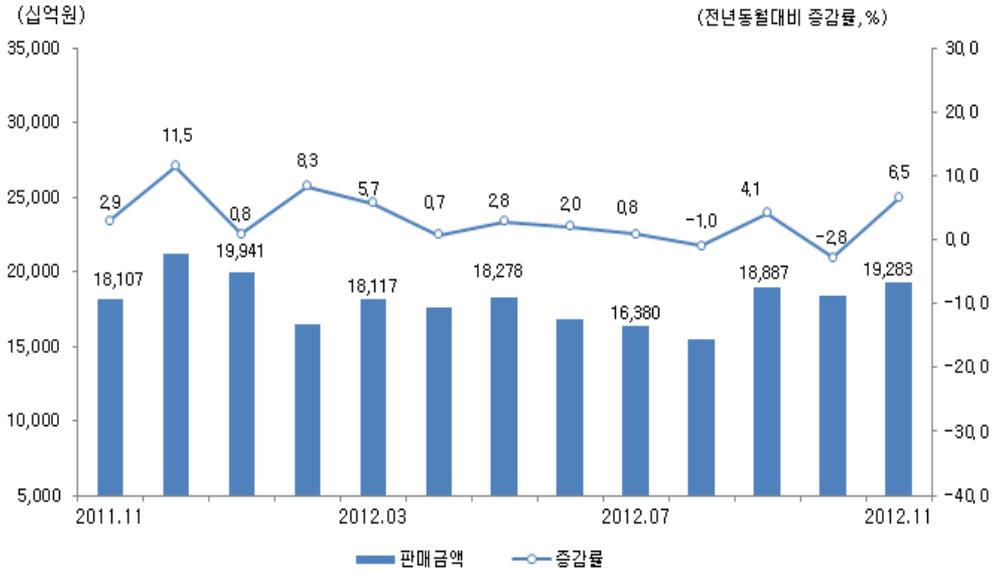
| 소 · 비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증가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9,28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5%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은 11.1% 증가, 대형마트는 1.5% 감소
 - 품목별 판매순위는 패션용품이 45.6%(8,793억원), 식품이 25.7%(4,952억원), 생활용품이 16.8%(3,243억원)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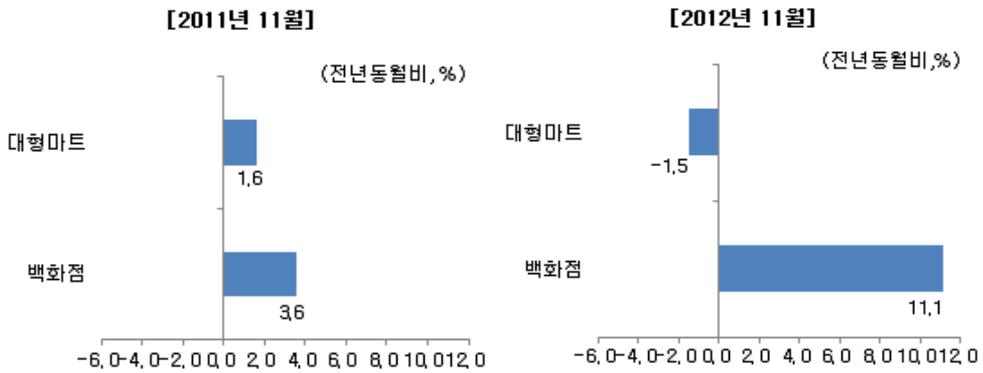
- 서울의 11월 백화점의 판매순위 1위는 패션용품, 대형마트는 식품
 - 백화점 판매액은 1조2,723억원(66.0%), 대형마트 판매액은 6,560억원(34.0%) 집계
 - 백화점 1개점 평균 매출액은 454.4억원이며, 대형마트는 89.9억원임
 - 백화점 판매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59.9%)이며, 대형마트는 식품(54.5%)
 - 권역별 판매액은 4권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36.7%인 7,081억원을 판매,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순

- 전국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1.5%, 대형마트는 1.1% 각각 증가
 - 유형별로 의복 등 내구재는 7.6% 증가, 승용차 및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6.1% 증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2.0%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경·제·활·동·인·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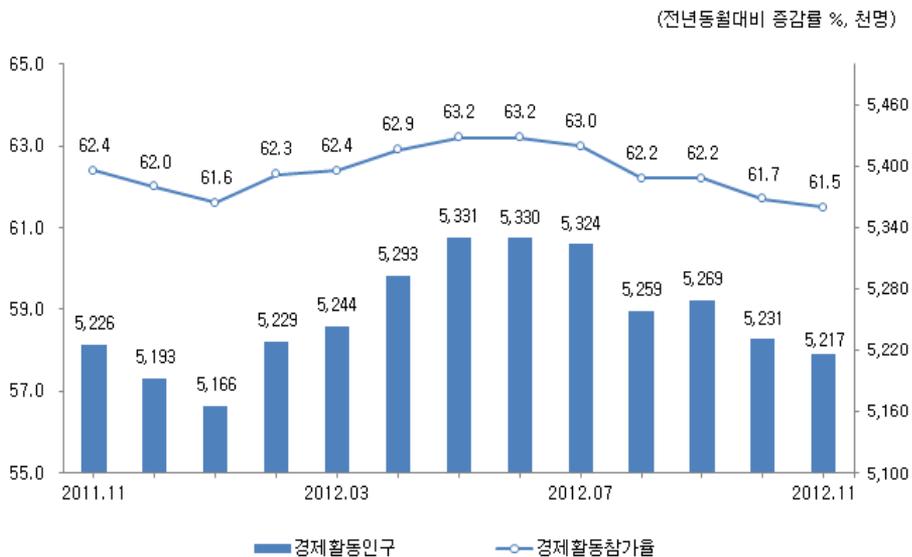
서울의 11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서울의 11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

- 서울의 11월 15세 이상 인구는 8,48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5천명(1.3%)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21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0.2%)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3,26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4천명(3.6%)이 증가

■ 전국의 11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

- 전국의 11월 15세이상인구는 4,17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만7천명(1.4%)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565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4천명(1.3%)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96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5천명(1.0%)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69만명으로 17만9천명(1.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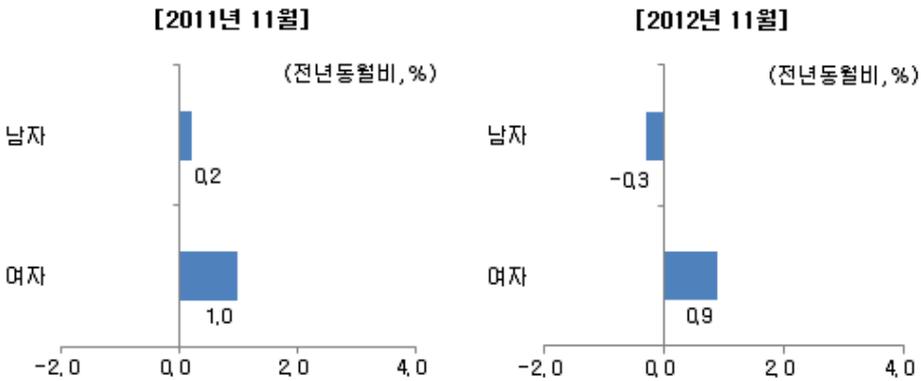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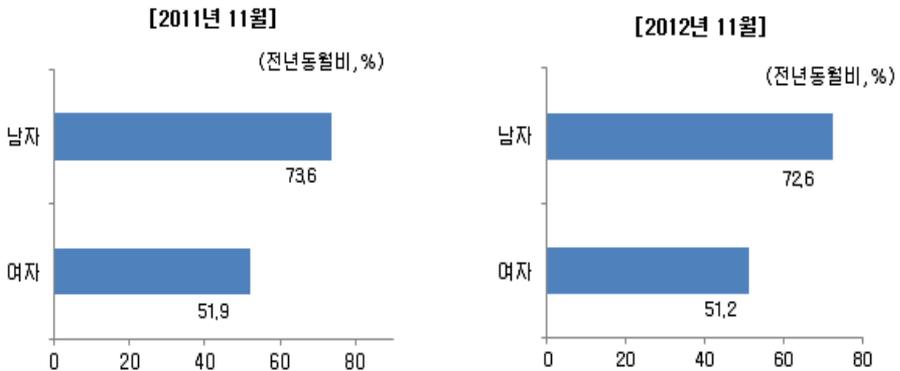
■ 서울의 11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남자 하락, 여자 상승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66명, 여자는 2,25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6% 하락, 여자는 0.4%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2.6%, 여자는 51.2%로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각각 1.0%p, 0.7%p 하락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 취·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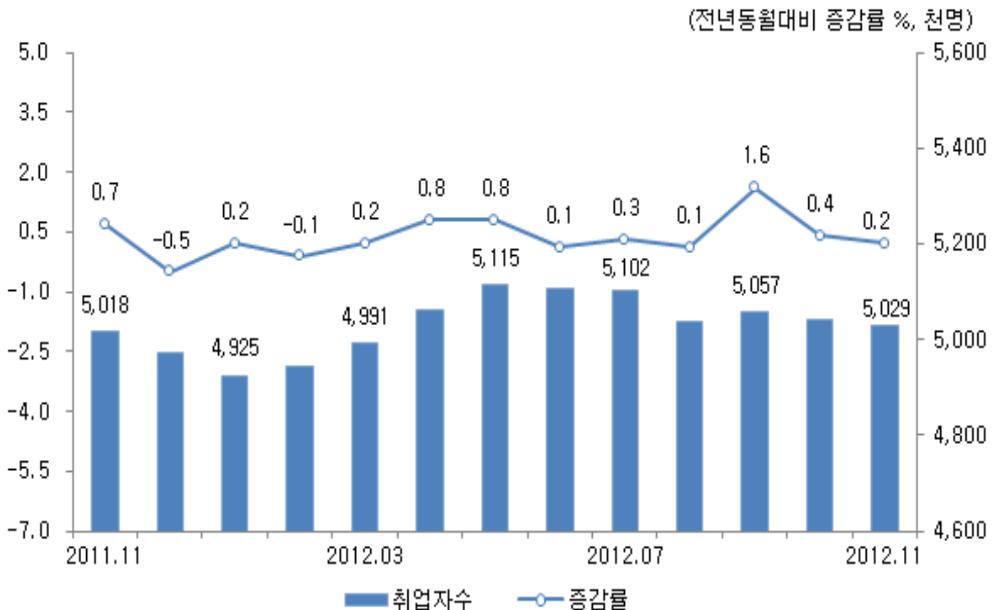
서울의 11월 전년동월대비 전체 취업자 수 8개월 연속 소폭 증가

■ 서울의 11월 여성 취업자 수만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1월 취업자는 5,02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0.2%)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50천명, 여자는 2,17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9천명(0.3%) 감소, 여자는 20천명(0.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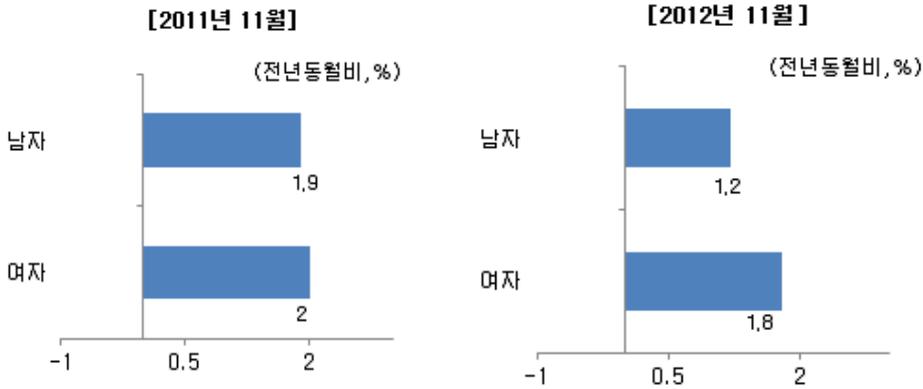
■ 전국의 11월 남, 녀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전국의 11월 취업자는 2,494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2천명(1.4%)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50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9천명(1.2%), 여자는 1,043만2천명으로 18만4천명(1.8%)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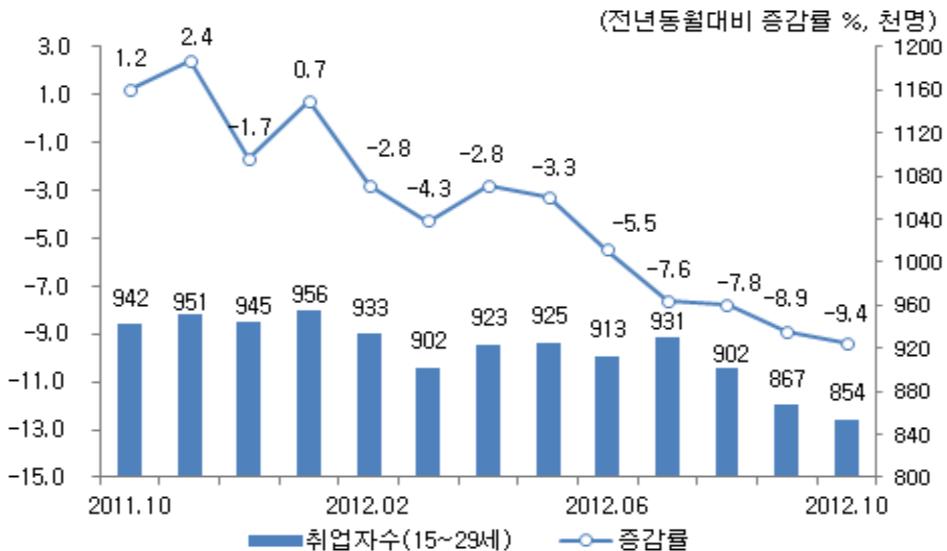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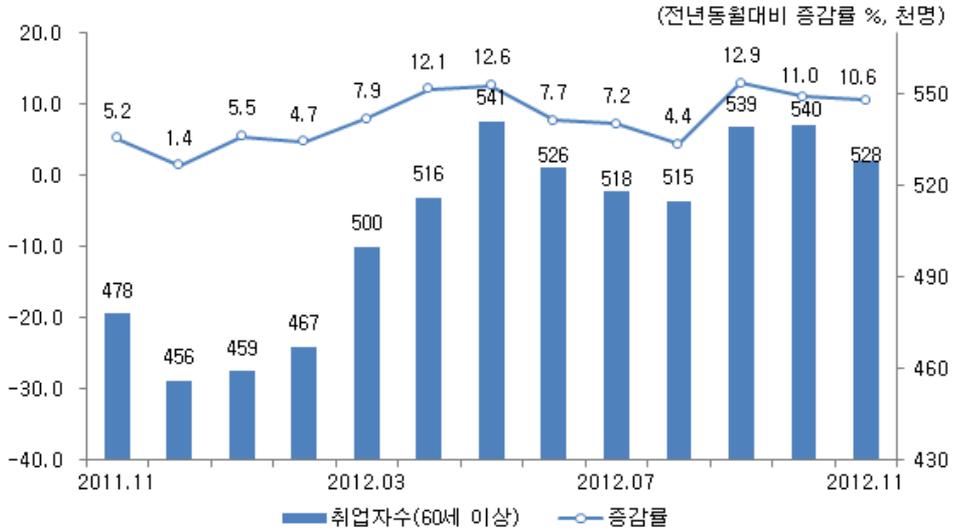
■ 서울의 11월 청년층(15세~29세) 감소,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 서울의 11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6% 감소하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서울의 11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6%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고령층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 반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로 연령별 취업자간 양극화 현상 지속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2천명(-25.3%), 건설업 39천명(-9.8%), 제조업 13천명(-2.4%), 도소매음식숙박업 0.3천명(-0.02%)은 각각 감소
-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53천명(2.7%),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1천명(1.3%)은 각각 증가

■ 직업별로 사무종사자 증가, 관리자·전문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20천명(1.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3천명(2.6%), 서비스 판매종사자 8천명(0.7%)이 각각 증가
- 반면, 관리자·전문가 17천명(-1.2%),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천명(-0.1%)은 각각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감소, 일용직 임금근로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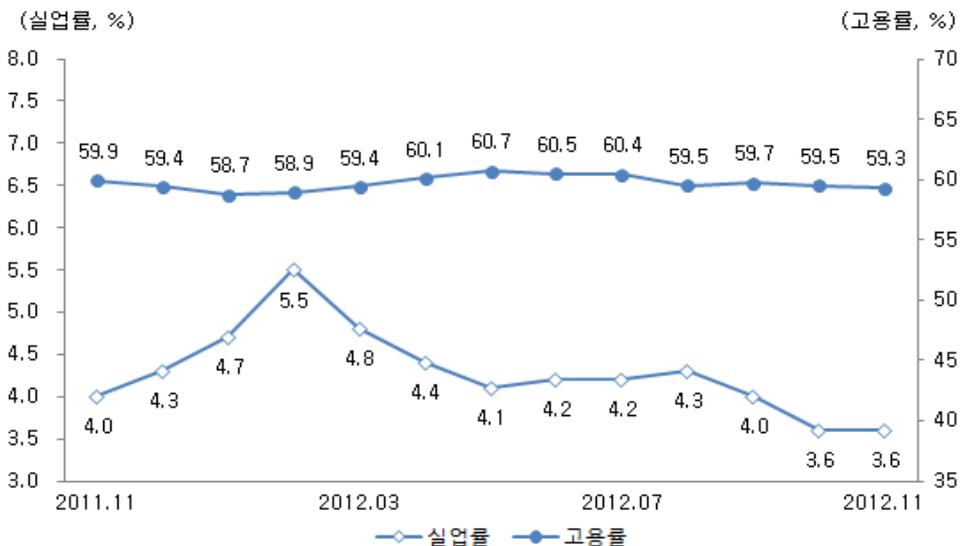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5천명(-4.6%), 무급가족종사자는 14천명(-8.5%)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79천명(3.4%), 일용근로자는 21천명(5.3%)이 각각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31천명(-2.7%) 감소

| 고·용·률·및·실·업·률

서울의 11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실업률 각각 하락

- 서울의 11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11월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8%로 전년동월대비 0.8%p, 여자는 49.5%로 0.4%p 각각 하락
 - 2012년 11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59.7%)에 비해 0.4%p 낮은 수준

- 서울의 11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11월 실업자는 18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천명(-9.4%)이 감소
 -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9%로 전년동월대비 0.2%p, 여자는 3.2%로 0.6%p 각각 하락
 - 2012년 11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2.8%)에 비하여 0.8%p 높은 수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서울의 11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 2%대 상승세

■ 서울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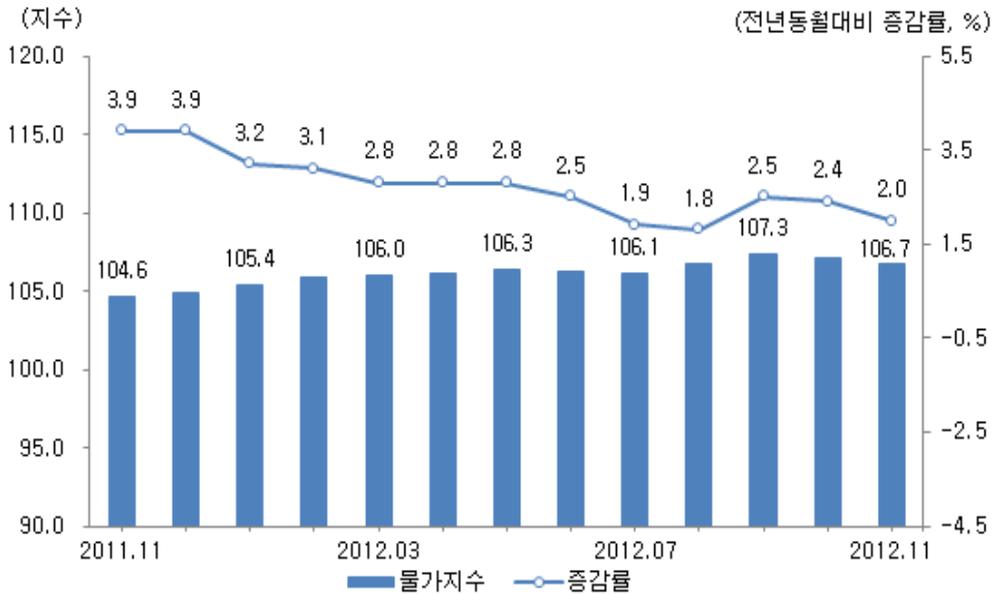
- 1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6.7(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2.0%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오락 및 문화 부문은 변동 없으며 통신부문 (-0.3%), 기타상품 및 서비스부문(-3.7%)을 제외하고 그 외의 부문은 모두 상승
-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2.0%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은 1.7%, 공업제품은 1.6% 상승
-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그 중 집세는 3.2%, 공공서비스 2.4% , 개인서비스 1.2% 각각 상승

■ 서울의 11월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는 1.5%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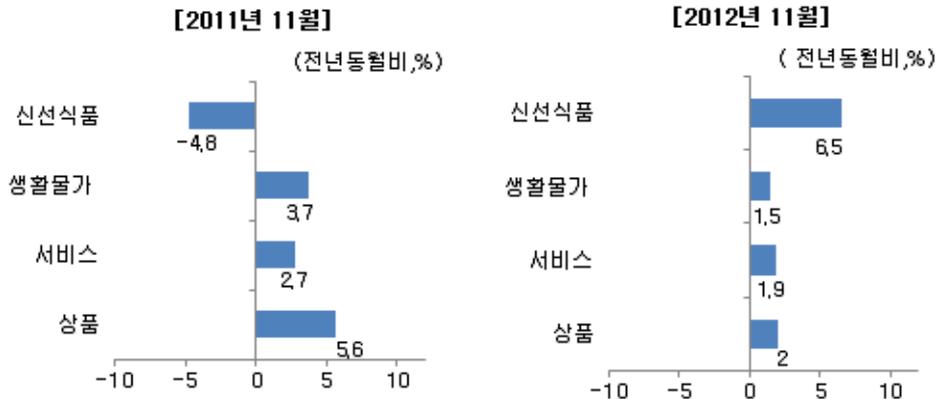
■ 전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5(2010년=100)로 전년동월대비로 1.6% 상승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부산과 경기도는 0.3%씩 하락, 서울 대구 등 10개 시도는 0.4%씩 하락, 대전 경북 강원 충북은 0.5~0.6%씩 하락
- 특광역시를 제외한 30개 도시별로 전월과 비교하면, 안산은 0.1% 하락, 남원 순천 등 9개 도시는 0.2~0.3% 하락, 수원, 성남 등 16개 도시는 0.4~0.5%씩 하락, 춘천 여수 포항 구미는 0.6~0.7%씩 하락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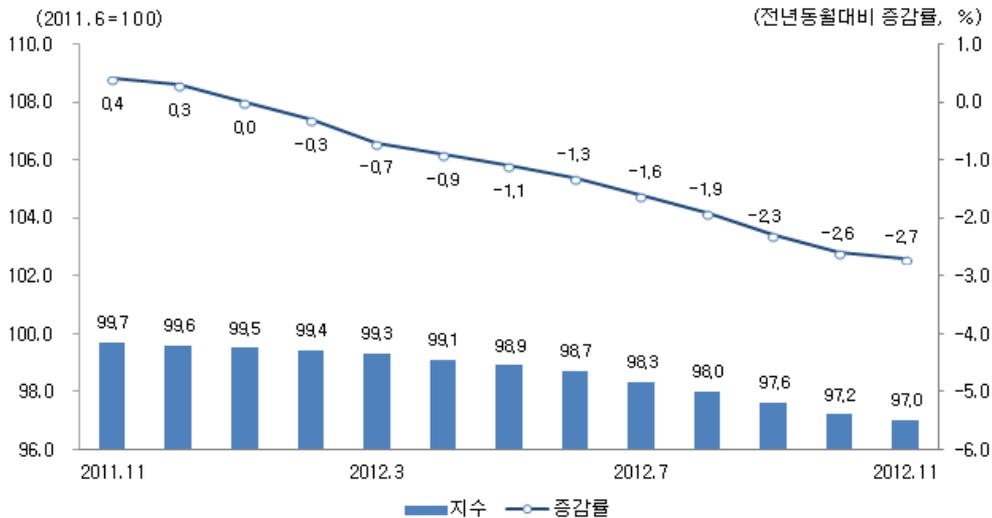
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 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수요자들의 매매거래 위축세가 확대되며 전월대비 0.3% 하락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보합인 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0.4%, 0.1% 하락

■ 전국의 11월 주택매매가격 매수세 부진으로 5개월 연속 하락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계절적 비수기로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며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5개월 연속 하락세
- 수도권은 매매거래 부진이 심화되면서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여 전월대비 0.3%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전월대비 보합,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0.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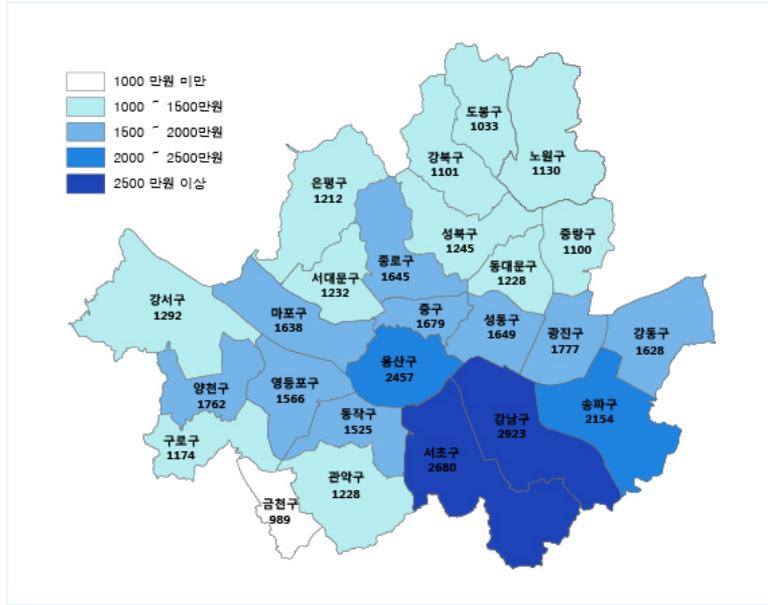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광진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봉구, 용산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2% 하락**
 - 도봉구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며 거래 침체가 심화되면서 매도물량 적체가 심화되며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전월대비 0.7% 하락
 - 용산구는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확대로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하며 매매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용산동, 이촌동의 대형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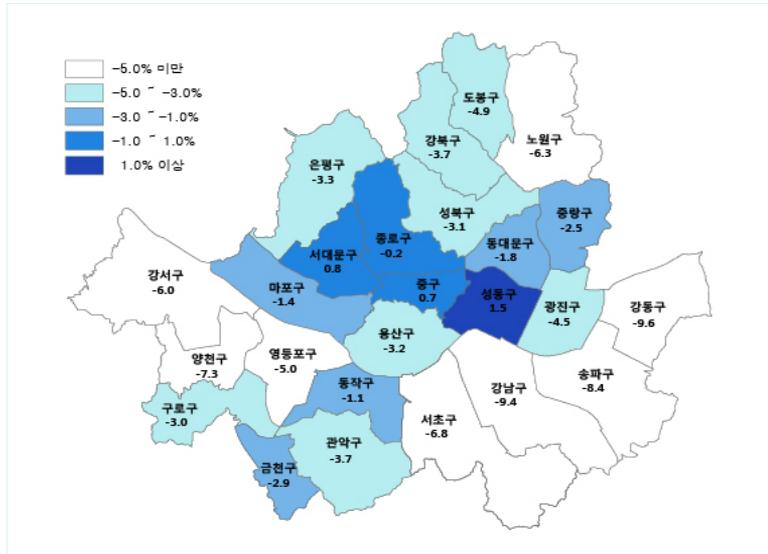
- **강남지역은 동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영등포구, 서초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3% 하락**
 - 영등포구는 급매물 위주로의 거래만 간혹 있을 뿐, 전반적인 수요 위축세가 장기화되며 전월대비 0.5% 하락
 - 서초구는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 예측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며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매도물량 적체가 심화되며 전월대비 0.5% 하락

- **서울의 11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11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678.2만원으로 전월대비(1687.62만원)대비 하락하여 하락세 지속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모두 10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강남구(2,923만원), 서초구(2,680만원), 용산구(2,457만원), 송파구(2,154만원), 광진구(1,777만원), 양천구(1,76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989만원), 도봉구(1,033만원), 중랑구(1,100만원), 강북구(1,10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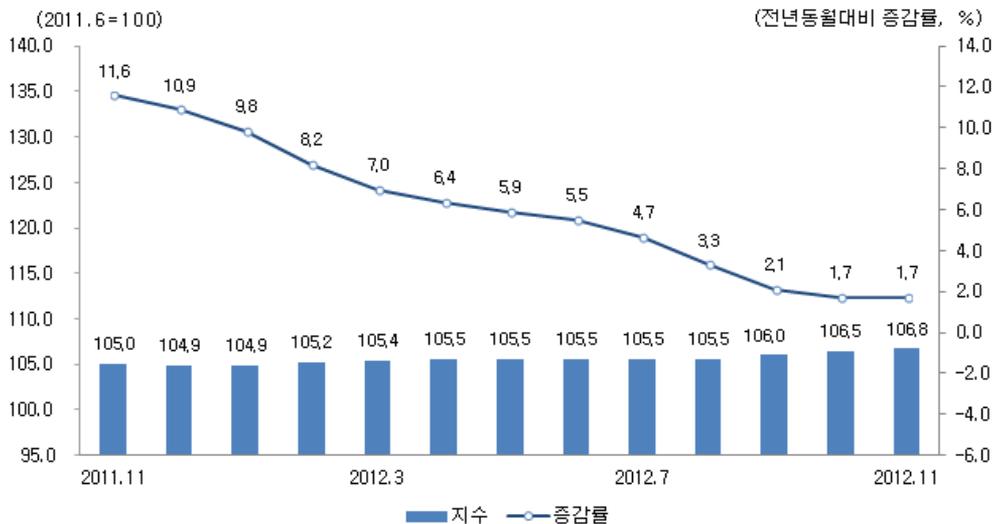
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3개월 연속 상승

■ 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며 전월대비 0.3% 상승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전월대비 0.5% 상승하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도 전월대비 각각 0.1%, 0.2% 상승

■ 전국의 11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고 하락세를 지속하는 매매와는 달리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월대비 0.4% 상승
- 수도권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였고 광역시와 기타지방도 전월대비 각각 0.4%, 0.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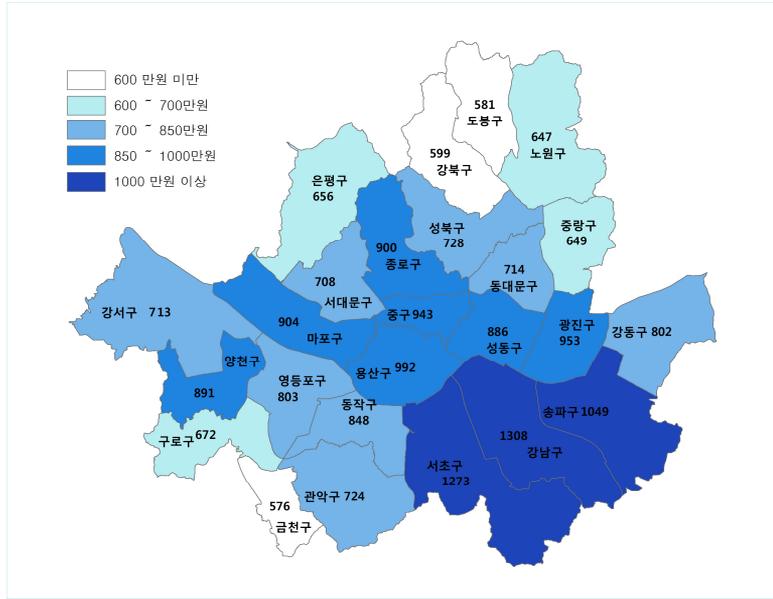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노원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구, 용산구 순으로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2% 상승**
 - 중구는 도심업무지구로 출퇴근 하려는 직장인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서울역 인근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려는 직장인 수요의 가세로 인해 전월대비 0.7% 상승
 - 용산구는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 증가로 전세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매매거래를 기피하고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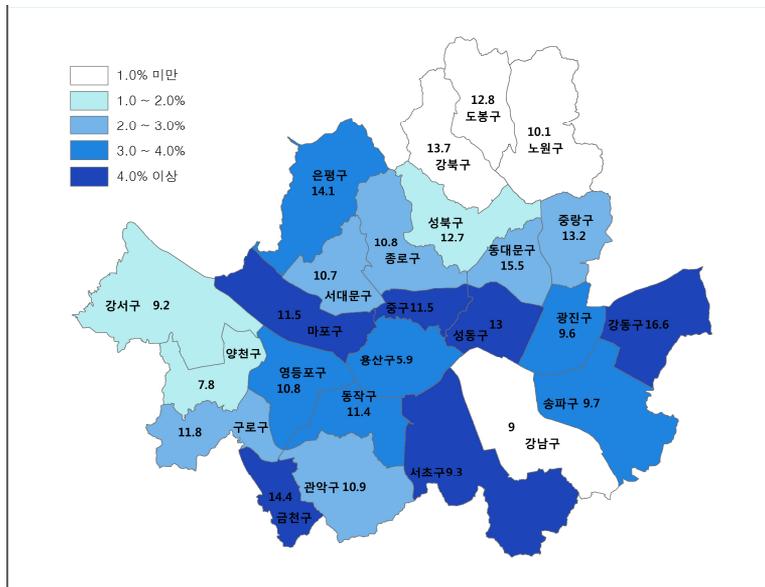
- **강남지역은 강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였고 특히 서초구가 다른 지역 대비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5% 상승**
 - 서초구는 신반포 한신1차, 반포대림아파트 등 재건축 확정으로 이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전월대비 2.2%로 대폭 상승
 - 강남구는 인근 지역 재건축 이주 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하는 가운데, 매매보다는 전세 선호 수요가 소형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며 전월대비 0.8% 상승

- **서울의 11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11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60.7만원으로 전월대비(854.6만원) 소폭 증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전월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강남구(1,308만원), 서초구(1,273만원), 송파구(1,049만원), 용산구(992만원), 광진구(953만원), 중구(943만원), 마포구(904만원), 종로구(900만원), 양천구(891만원), 성동구(88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76만원), 도봉구(581만원), 강북구(599만원), 노원구(64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가 · 계 · 대 · 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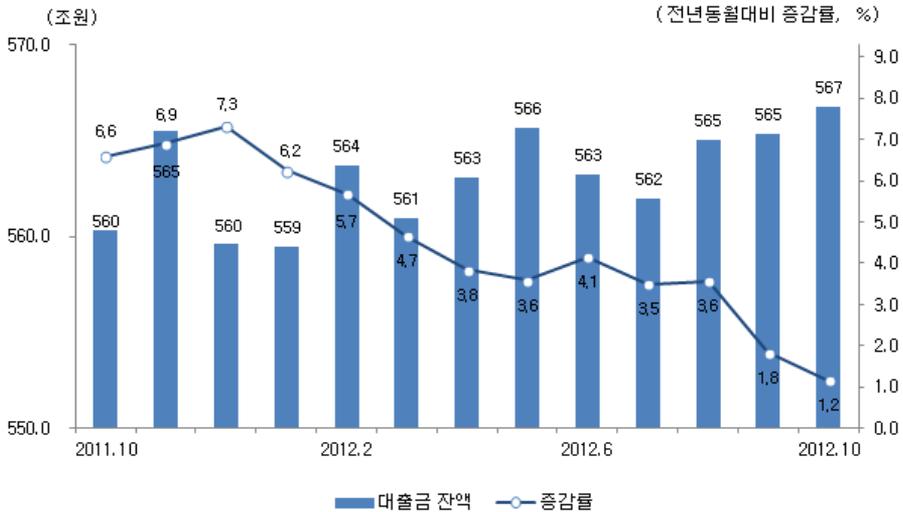
서울의 10월 가계대출과 주택대출 모두 전월대비 소폭 증가

■ 10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 10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6조 7,640원 규모로 전월대비 1조 4,315억원(0.25%)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9조 4,302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7조 3,338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3%, 5.1% 증가

■ 10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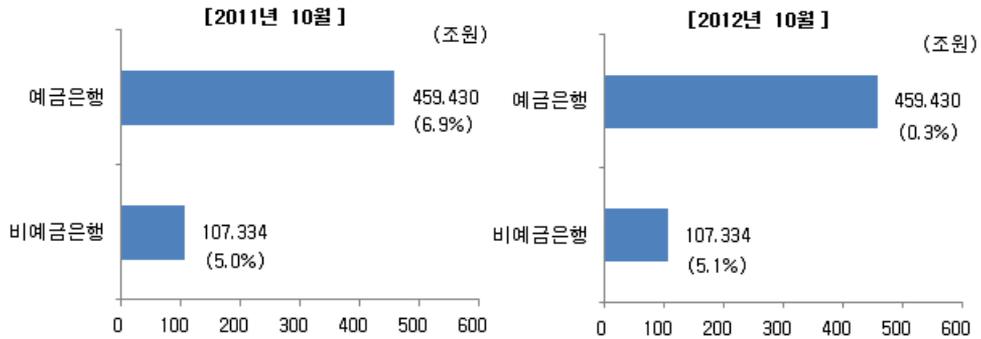
- 10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51조 3,898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 5,944억원(0.39%)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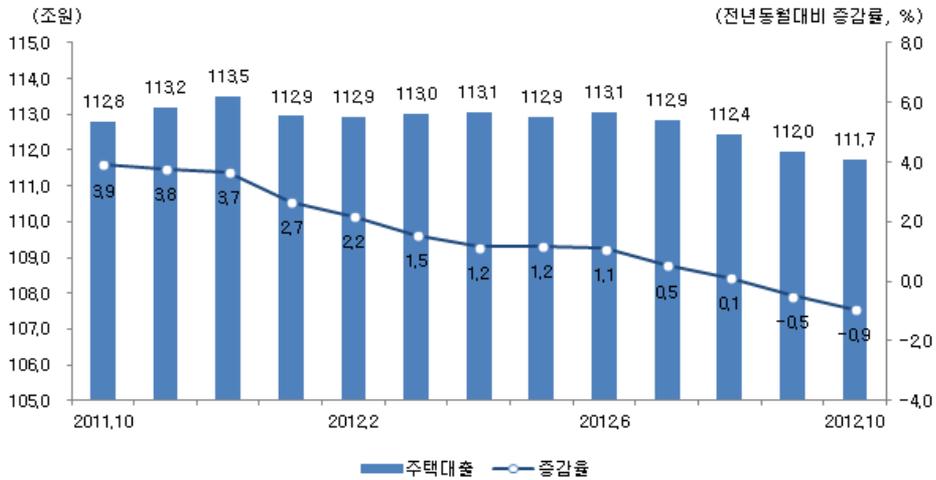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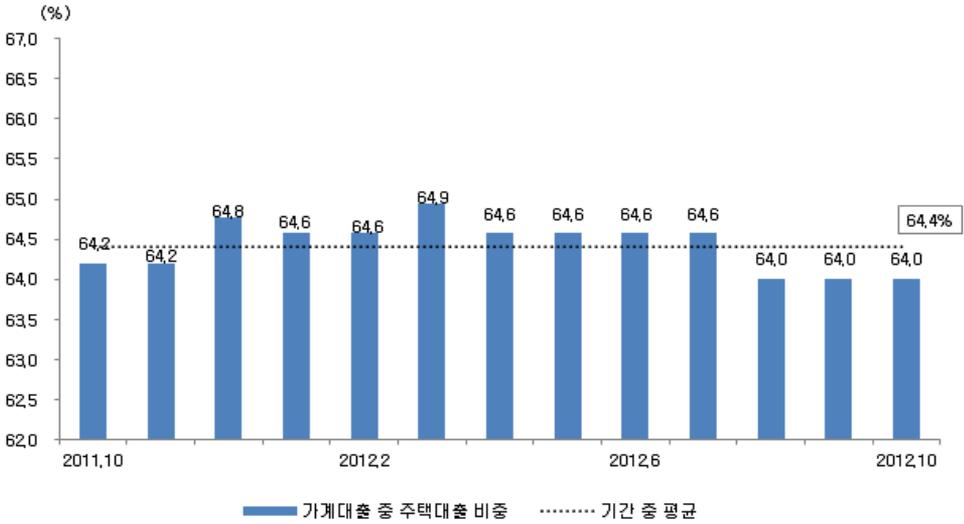
■ 10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 10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5조 302억원으로 전월대비 529억원(0.3%) 소폭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1조 746억원(64.0%)으로 전년동월대비 0.9% 감소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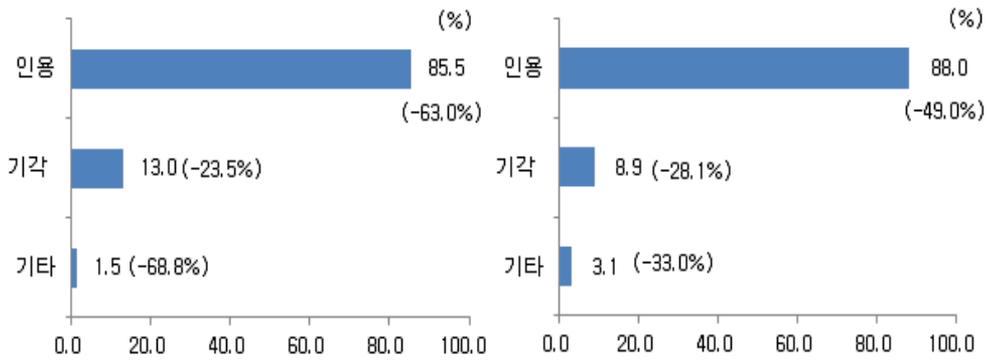
■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

- 11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162명으로 전월대비 16.9% 증가,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13.0%로 전년동월대비 23.5% 감소하였고 면책 기각률도 8.9%로 전년동월대비 28.1% 감소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그림> 11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11월 면책 처리현황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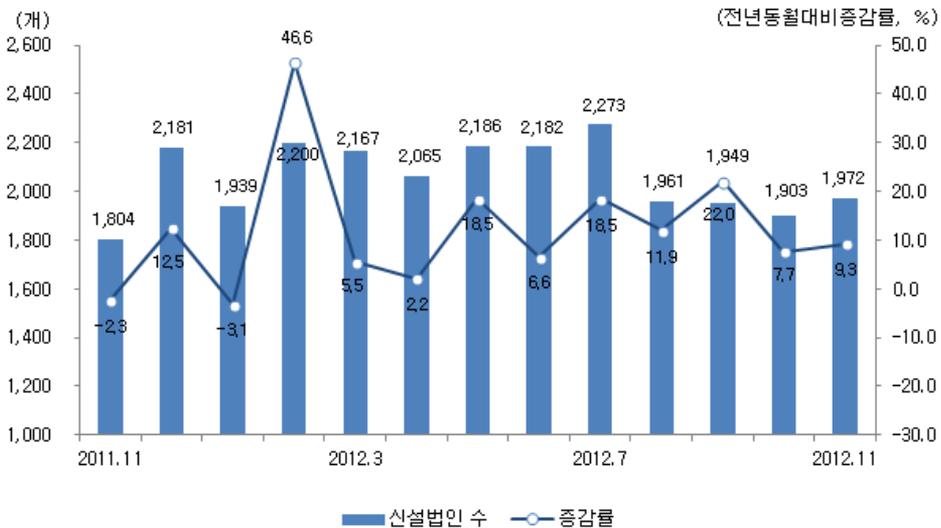
서울의 11월 신설 및 부도법인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11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972개로 전월대비 3.6%(69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9.3%(168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각각 10.2%(23개), 4.1%(64개) 증가한 반면,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16.5%(17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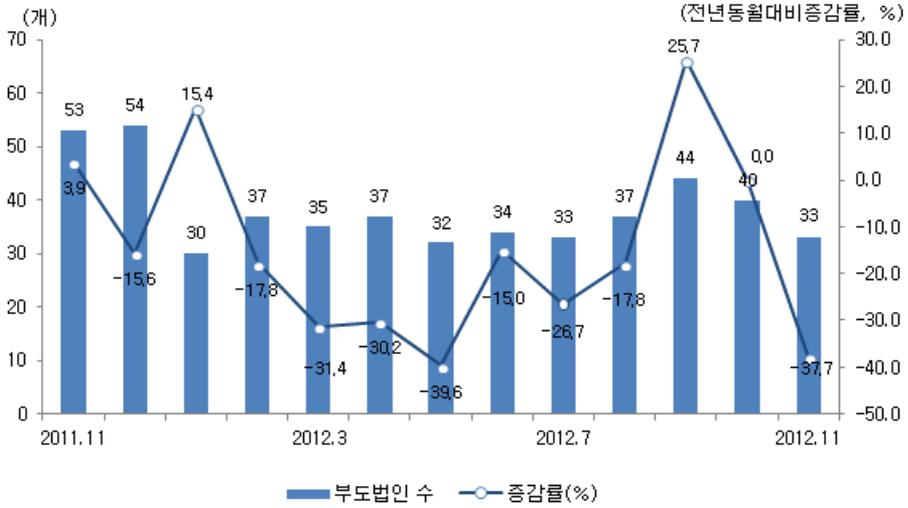
■ 서울의 11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3개로 전월대비 17.5%(7개)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 37.7%(20개) 감소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전월대비 각각 29.2%(7개), 42.9%(3개)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전월대비 25%(2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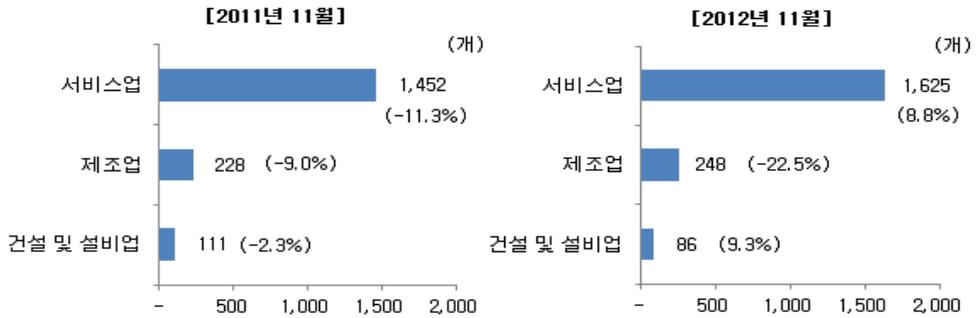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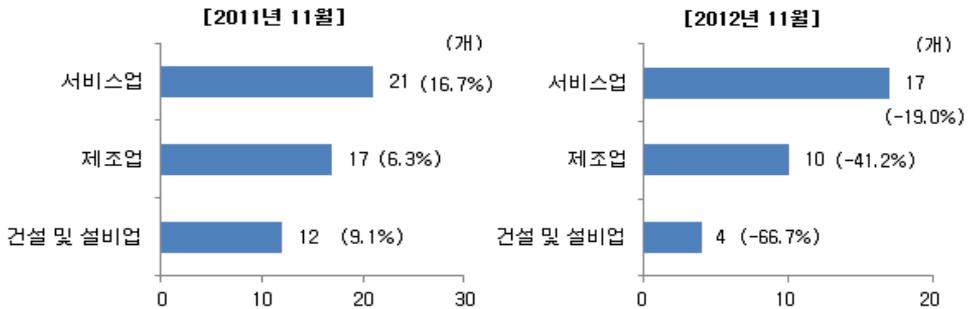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

- 11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9.8배로 전월(47.6배)보다 증가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용·보·증·동·향 |

서울의 11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전월대비 증가

■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3,477건, 89,452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와 보증금액은 각각 7.9%, 8.5%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0.4% 증가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 건수는 각각 0.8%, 8.7%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금액은 7.2%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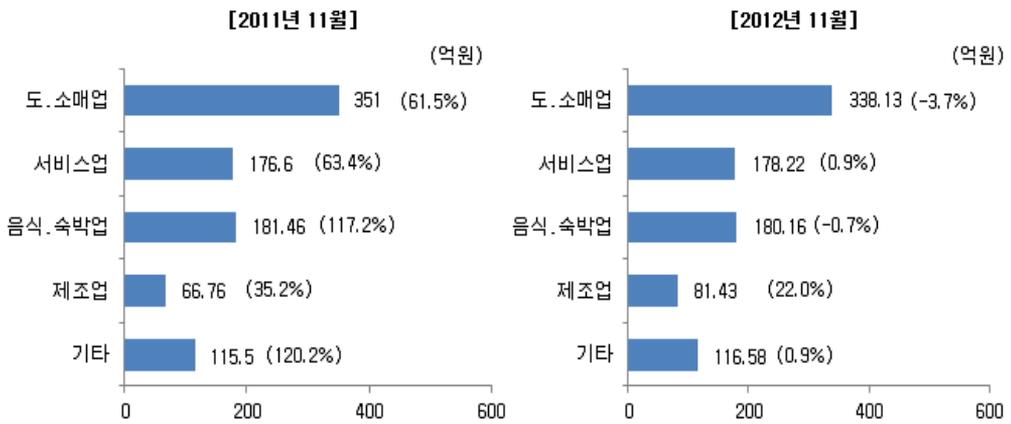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제조업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

- 11월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9.1%로 전월(11.2%) 대비 2.1%p 감소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은 37.8%로 전월(37.0%) 대비 0.8%p 증가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7.1%로 전월(9.1%)대비 2.0%p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5.7%로 전월(36.1%)대비 0.4%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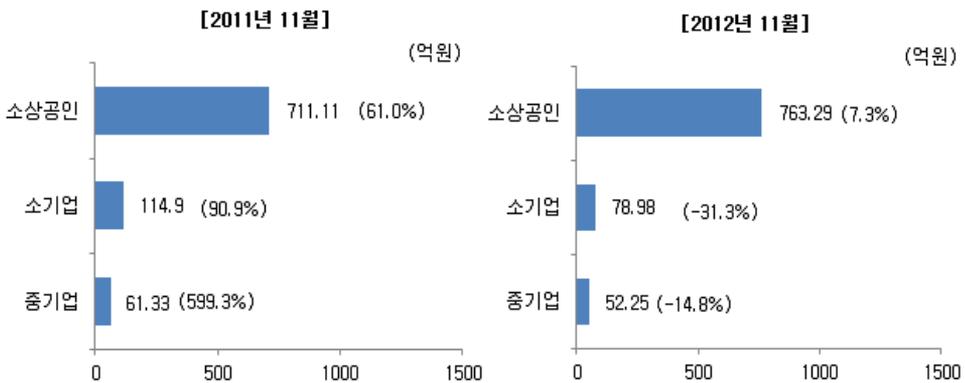
■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5.4%로 전월대비 1.9%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93.3%로 전월대비 1.5%p 감소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8.8%로 전월대비 0.6%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4.0%로 전월대비 0.2%p 증가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5.8%로 전월대비 2.5%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2.7%로 전월대비 1.3%p 증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11월 수출 반도체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11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5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한 반면 수입은 104.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77.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7% 감소하였고 수입은 433.8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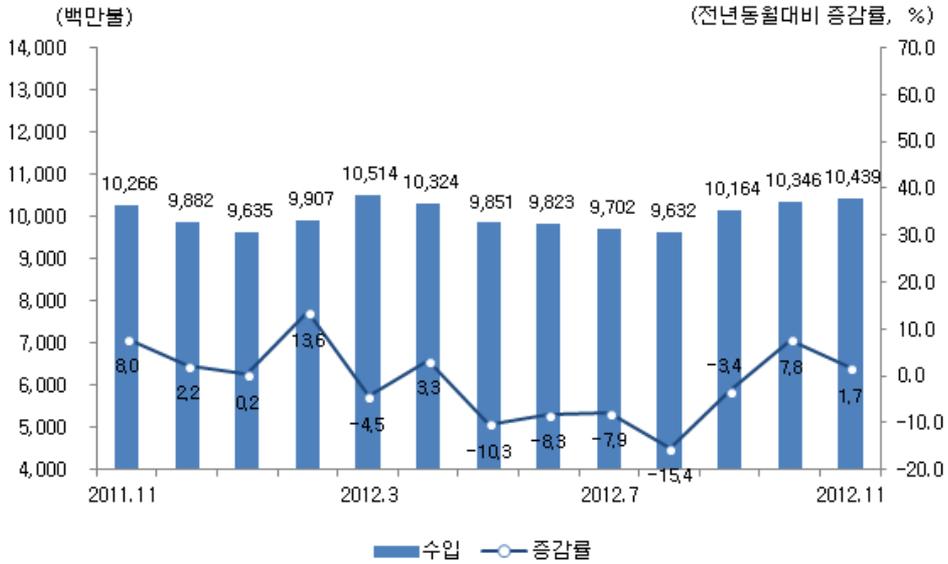
■ 서울의 11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600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편직물, 합성수지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1,240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의류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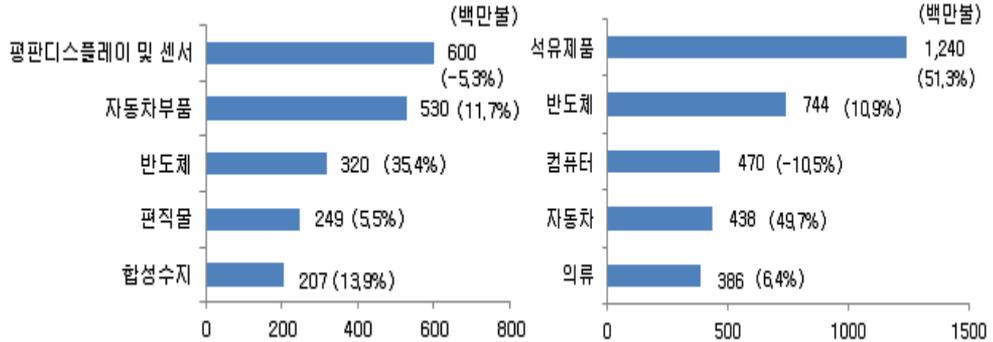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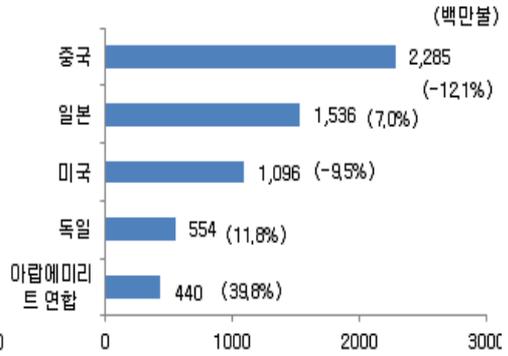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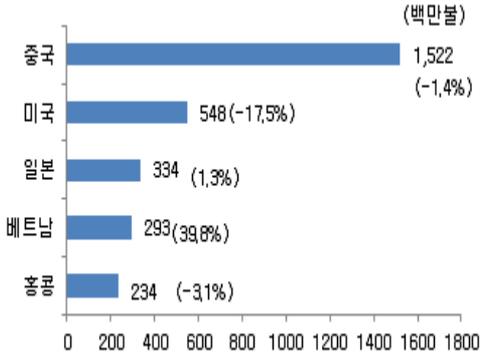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1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11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11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한 1,522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2.1% 감소한 2,285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아랍에미리트 연합 순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1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11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